

목공예 버스서 나만의 공예품 만들어요



광주 '나무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피노키오의 꿈다락버스'를 이용한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목공예품을 뽐내고 있다. 오른쪽은 내부 모습.



광주 북구 마을기업 나무로 협동조합 이동식 공방 '피노키오의 꿈다락 버스'

지난해 이어 찾아가는 학교 문화 프로그램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선정 버스 개조 15명 동시 작업대·장비 등 갖춰...복지시설·마을 방문 계획

지난 1월 광주시 북구 문흥초등학교 운동장에 노란색 버스가 들어서자 아이들 시선이 집중됐다. 장난치는 피노키오 그림이 함께 알록달록 무지개색으로 써진 '피노키오의 꿈다락' 글자는 멀리서도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버스 하단부에는 나무무늬 래핑(차량 외부에 붙이는 장식용 필름)이 둘러져 마치 목재로 만들어진 모습이었다.

광주 북구 마을기업 '나무로 협동조합'(대표 김봉환)이 올해부터 운영하는 이동식 목공예체험교실 '피노키오의 꿈다락 버스'다.

버스 외관에 마음을 뺏긴 아이들은 안에 들어서자 더 놀랐다. 최대 15명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규모, 버스 양쪽으로 설치된 작업대와 곳곳에 비치된 직각자·드릴 등 각종 공구. 아이들은 꼬마 목수가 돼 연필꽃이, 작은 수납함 등 자신만의 공예품을 만들며 즐거워했다.

김봉환(64) 대표는 "블럭 조립 등 만들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 실제 목공예품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도 키워주기 위해 '피노키오 버스'를 제작, 운영하고 있다"며 "교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보다 아이들이 더 신이 나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버스에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목공예 작품.

지난 2013년 말 설립된 '나무로 협동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꿈다락토요문화학교'에 선정됐다. 각 학교를 찾아가는 방문 목공예프로그램 '피노키오의 꿈'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 외에 공방장 김형룡, 디자이너 박영호, 제품 제작 이용은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처음 진행했을 때 미흡한 공간, 장비 이동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다. 나무 조각과 각종 장비를 써야하는 목공예 작업을 할 땐 넓고 평면이 고르며 쉽게 흠집이 나지 않는 작업대는 필수다. 하지만 학

교 교실에서는 좁은 책상을 사용해야하니 불편한 점이 많았다. 또 학생 수십명이 사용할 장비를 그때그때 차에 싣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이에 협동조합 구성원들은 "아예 이동식 공방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해 사업비도 확보했다.

지난해 6월 중고 35인승 버스를 구입해 조합원들이 직접 구조를 변경했다. 한여름 땀을 뻘뻘 흘리며 의자를 일일이 뜯어내고 목공 분위기가 나도록 내부를 나무 합판으로 덧댔다. 사람이 걸터앉아도 끄떡없을 정도로 작업대는 견고하게 설치했고 장비를 보관하는 도구함도 문옆에 설치했다. 모든 목재는 친환경재료를 사용해 아이들 건강에도 신경썼다. 김 대표는 직접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대형면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피노키오 버스'는 특색 튀는 소규모 디자인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차 모양 연필꽂이, 집모양 우편함, 형형색색 손잡이가 달린 보관함 등 쉽게 조립만 하면 완성할 수 있는 종류다.

피노키오 버스는 앞으로 학교 뿐 아니라 회사, 복지관, 지역공동체, 행사장 등으로 활동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보고 듣는 프로그램이 아닌 직접 목공예 작품을 만들며 문화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지원한다.

김 대표는 "예전에는 동네마다 목공소가 있었고 집에도 공구가 많았지만 지금은 막상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며 "피노키오 버스는 공구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문의 062-264-567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담양 담빛예술창고 지역작가 사진기획전 5월 1일까지

담양 담빛예술창고가 사진기획전 '이미지의 스펙트럼'을 5월 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영태, 라규재, 정일, 박일구, 이정록, 안희정, 박세희, 박하선, 인춘교, 리일천, 이설재 등 지역에서 차별화된 사진 미학을 보여주는 작가 11명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뚜렷한 작업성향이나 주제 의식을 가지고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번 전시는 최근 사진예술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다.

리일천은 자연풍경 일부나 숲의 단편이 가지고 있는

색깔에 초점을 맞춘다. 피사체간 공간과 원근감을 통해 추상화면과도 같은 구성을 보여준다. 박세희는 생성과 소멸을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옛 흔적을 렌즈에 담는다.

김영태, 라규재, 박일구, 이설재는 순간 포착이 아닌 현실과 가상을 아우르는 색다른 이미지를 연출한다. 김영태는 재개발이 예정된 쇠락한 계림동 골목길을 도회지의 실핏줄로 보고 여러 이미지를 중첩시켜 시간 퇴적을 표현한다.

대숲에 부는 바람 이미지로 그려 온 라규재는 이번



김영태 작 '도시의 기억'

전시에서는 햇살이 부딪히는 대나무와 어두운 뒷배경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성찰한다. 문의 061-381-6444. /김용희기자 kimyh@

아빠를 찾아라!

광주 롯데갤러리 5일~5월 5일 어린이 체험전시



윤서희 작 '우리 아빠'

광주 롯데갤러리가 봄기운 가득한 4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전시 '아빠를 찾아라!'를 5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한다.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윤서희 작가의 작품 30여점을 선보이는 전시다.

최근 각종 유아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며 '아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전통사회 가부장적인 모습에서 마치 친구같은 친근하고 살가운 이미지로 변신했다.

이번 전시는 유쾌한 그림책 형식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아이 눈높이에서 아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관람객들은 호기심 많고 발랄한 동물친구 '조이'를 따라 동화 한편을 감상하듯 전시를 체험할 수 있다. 강이지 조이는 아침 일찍 출근한 아빠를

찾아 떠난다. 작품 '아빠를 찾아라'는 탐정모자를 쓰고 손에 돋보기를 든 조이가 발자국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아빠를 봤니?'는 길에서 만난 고양이에게 묻고 있다. '우리 아빠'에서는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아빠 손을 잡고 있는 조이가 등장한다.

그밖에 '가족의 탄생', '아빠와 나', '두개의 별' 등 가족과 아빠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작품도 전시된다.

어린이들은 작품 감상과 함께 포토존, 퍼즐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전시를 통해 느낀 아빠 존재와 그에 대한 생각을 체험북, 대형 캔버스에 표현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문의 062-221-1807~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대 류재한 교수 '문화도시 광주' 영문 연구서 펴내

광주가 문화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함께 어울리고 함께 놀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대 불어불문과 류재한 교수(유라시아연구소장)는 최근 문화도시 광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영문 연구서 'Culture city and Creativity focused on Gwangju'(문화도시와 창의성)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류 교수는 이번 연구서에서 광주가 선점한 문화 관련 글로벌 의제, 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활용해 어떻게 문화계의 지형도를 바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히 저자는 광주가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산업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사후관리 능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 가지 글로벌 문화 의제를 따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놀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책 서문에서 "지금 광주가 안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문제와 문화 산업의 문제 역시 글로벌 의제 안에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아리랑맛집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s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